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방법론 비교 연구

A Comparison Study on the Methodology of the Husbands' Participation in the Household Work

이화여대 가정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文淑才

부산여대 자연대학 가정관리학과

강사 趙誠垠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Prof. : Sook Jae Moon

Dept. of Home Management Pusan Women University

Lecturer : Seong Eun Cho

〈목 차〉

- I. 문제제기
- II. 가사노동 연구방법론에 관한 고찰
- III.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 IV. 질적방법과 양적방법의 비교
- V. 결과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This research is planned to compare a quantitative methodology and a qualitative methodology in the study of the household work. For these research tasks, this study is centered on husbands' participation in the household work.

First, it is reviewed study precedent using a quantitative method and a qualitative method to compare a research methodology of the household work. It is selected a survey method of quantitative methodology and a depth interview of qualitative methodology.

Second, the data are collected through the questionnaire and the depth interview with three couples.

Third, to compare a quantitative methodology and a qualitative methodology,

it is looked about problems in the concept, the grouping, the collection of data, and the interpretation of household work.

I. 문제제기

최근 가족에 대한 연구는 변모한 가정생활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중에서도 70년대 이후 산업화에 따른 새로운 기기의 발달,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취업의 증가, 평등관계를 지향하는 부부관계, 가사노동 사회화의 급진전등으로 과거와 달라진 가사노동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특히 활발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가사노동가치 인식에 대한 변화(김명희, 1984), 가사노동 상품대체의 증가(이기영, 1987), 주부의 가족내 역할수행의 변화(이연주, 1984)등으로 산업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주부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바꾸게 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지적한 연구들은 주부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과 수행의 변화만을 지적하고 있으며, 아직도 고정화된 성역할 분업형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남편의 가사노동참여 실태는 가사노동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미비한 실정으로 밝혀져왔다. 이같은 결과는 70년대와 80년대, 90년대 논문을 비교해 보아도 같은 실정이다. 특히 80년대 말부터 90년대는 성역할조정이 기대되는 취업여성 가정의 가사노동실태에 대한 연구(이연숙 외, 1991, 두경자, 1991, 한경미, 1989, 노미혜, 1987)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도움은 비취업주부의 남편과 비교해서 거의 차이가 없다는 보고로 일관된 경향만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다른 나라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미국의 1970년대는 가정의 가정기기에 대한 침투율이 증가하였고, 간이식당과 편리식품이 급속히 증가하여 가사노동이 더 쉬워진 해였기에, 이렇게 쉬워진 가사노동은 경험이 적은 남편과 아이들의 수행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이런 기대하에, Sanik(1981)은 1967-1977년간 가사노동

에서 아내와 남편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족 구성원 모두와 남편에 의해 가사노동에 사용된 총시간은 10년동안 변화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Berk(1980)의 가족활동과 배우자의 설명을 비교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보면 심각한 의문을 제기받게 된다. 즉 Berk(1980)는 사람들은 가정을 여성의 작업장소로 여기고 있으며, 좀 더 다양한 가정일을 여자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 모두 남편의 참여에 대한 설명시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남편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최근 30년간 모든 가사노동영역에서의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만이 보이는 불변성은 여성과 남성이 가정일에 대해 갖고 있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에 의해 왜곡된 분석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연구에 있어 다른 영역보다도 성별분업과 관련된 면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불변성과 미미한 변화가 실제 실태의 반영인지 아니면 방법론상의 문제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남편들의 가사노동 의식, 여성들의 남자의 가사노동참여에 대한 생각등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다루어져야 하는 가사노동 성별분업과 같은 주제에 대한 연구에서 양적방법만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과연 타당한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이제껏 행해져온 양적방법에 대한 고찰과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비교를 요구하므로, 이제껏 수행된 양적방법론이 갖는 장점과 제한점을 살펴보고, 또 다른 방법론을 적용하여 과연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편들의 가사노동 실태가 과거와 변함이 없는 성역할 분담형태를 고수하고 있으며, 가사노동 참여시간의 증가도 거의 없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과연 옳은가를 밝히기 위해 선행 연구들이 사용한 연구방법(양적방법)의 문제를 살

펴보고, 다른 방법론(질적방법)을 사용하여 제기되는 결과와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는 양적방법론과 질적방법론이 갖는 방법론상의 비교가 될 것이며, 가사노동의 연구에서 각각의 방법론이 갖는 장점과 문제점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II. 가사노동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

1. 양적연구방법론

가정학의 연구는 일제시대 전문학교에 가사과가 생기면서 시작된 후 1959년 대한가정학회지가 창간된 이후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각 대학에 대학원 과정이 설립되면서 가정학 연구 풍토에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조복희, 1992). 이후 가정학은 전문영역별로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많은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하였고, 이와함께 연구의 양적인 증가가 이루어졌다.

특히 가정학내에서도 실제 생활을 토대로 한 연구가 더욱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관리학에서는 실증적인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따라서 가정관리학에서는 가설검증을 토대로 한 실증적 연구가 많이 실시되었고(68.4%), 이는 식품영양분야의 실험실 연구(72.2%), 의류학 분야의 역사적 연구(34.2%)나 실험실 연구(34.6%)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관리학에서 질문지를 이용한 자료수집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하였다(조복희, 1992). 따라서 가정관리학에서는 질문지법에 의해 수집된 자료의 신속한 처리와 가설검증을 위해 컴퓨터의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연구풍토속에서 가정관리학의 연구는 보다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한 척도의 개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보다 설명력이 높은 통계적 분석방법의 사용에 더욱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고, 이제는 더 좋은 통계 분석방법, 더 새로운 통계방법을 경쟁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분석방법도 단순한 기술통계(FREQUENCY, MEANS, STANDARD DIVIATION), 차이검증(χ^2 -TEST), 상관

관계(CORRELATION)에서 벗어나 분산분석(ANOVA, GLM), 회귀분석(REGRESSION), 요인분석(FACTOR ANALYSIS), 경로분석(PATH ANALYSIS)등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법은 가정학 연구의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이미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변수들이 다루어지기 어렵고, 나타난 결과에 대해 주어진 자료만을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는 문제이다. 이는 질문지의 구성과 해석이 선행연구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갖게 되는 한계점이다. 또한 연구 개념의 정의와 분류, 척도등이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에 의해 이미 모두 결정된 상황에서 연구가 진행되므로 연구자에 의해서 제외된 내용들은 실태에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연구에 제대로 반영되기가 어렵다. 또한 현실적으로 다른 요인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 할지라도 연구설계시 연구자가 계획했던 대로 분류되어 해석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론상의 제한점은 그대로 연구의 제한점이 된다. 또한 양적방법은 복잡한 연구보다 단순한 주제 즉 변수간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연구방법이므로 이미 밝혀지지 않은 변수를 찾아낼 길은 없으므로 새로운 이론의 제시는 보다 어렵게 된다. 이는 가정학이 이론 정립의 부재라는 문제를 안게된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특히 남편들의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연구주제와 같이 심리적인 요인이 포함된 주제나 사람들이 밝히길 꺼려하는 내용과 관련된 주제(소득, 부채, 이혼, 강간, 별거등)를 연구할 경우 이러한 방법론상의 제한점은 더욱 큰 문제가 되게 된다.

2. 질적연구방법론

질적연구방법은 방법론적 성격을 표상하는 말로써 가정학과 관련이 되는 것은 이중 가장 중요한 자료수집 방법의 하나인 대화를 통한 심층면접이다. 가정학 특히 가정관리학 연구 중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에 심층면접이 시도된 연구는 Oakley의 「가사노동

의 사회학」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연구에서 Oakley는 가사노동에 대한 여성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를 위해 런던에 살고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그녀는 '검증할만한 가치가 있는 가설들은 이미 많은 것이 판명되고 있는 영역 곧 실험적 분야의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영역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단계이전에는 대부분의 연구가 탐색적인 성격을 갖는다. ...'라는 입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를 알려주는 정확한 유형 파악을 위해 질적연구방법을 채택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도 또한 가사노동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유형을 사회계층, 교육, 결혼생활에서의 노동분담, 기계설비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유형 등 여러 변수와 관련시켜 X^2 -검증을 통해 분석하고 있어 크게 양적방법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따라서 질적방법론의 적용이 가정관리학 연구에서는 아직 크게 다루어지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가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시 질적방법론의 적용은 선행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어 가사노동의 연구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질적방법에서 양적방법과 다른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비조직적 면접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구조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면접의 틀은 가지고 있되,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언제나 통제된 절차가 전혀 배제되지 않아야지만 올바른 질적연구를 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절차가 곧 연구자가 모든 개념과 분류, 척도 등 연구설계를 계획하고 들어가 수집되는 자료를 여기에 맞추어 해석하려는 양적방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선행연구와 이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면접을 통해 알게되는 새로운 사실과 이론을 연결시키며 기존결과를 수정하는 작업을 계속해야만 한다. 이러한 진행방식이 곧 질적방법의 결과해석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요인의 발견과 새로운 이론정립이 가능해지게 된다. 하지만 양적방법에 익숙해져 있는 가정관리학 연구자들에게 이런 연구진

행방식은 생소하고 낯선 연구방법이어서 질적 방법이 가정관리학 연구에서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1. 연구방법 및 연구의 제한점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시 양적방법론과 질적방법론의 연구결과를 비교하여 각 방법론이 갖는 장점과 문제점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주제로 본 연구에서는 남편들의 가사노동참여에 대한 실태를 밝히고자 하며, 이때 남편과 아내 모두의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과 실태에 대한 자료를 두개의 방법론을 통해 얻고자 한다. 따라서 양적방법과 질적방법의 구체적인 조사방법으로 질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선택하였고, 이때 질문지를 통한 조사도구와 면접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양적방법을 위한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한 질문지는 주부와 남편의 연령 및 교육수준, 가족수, 주부의 취업상태, 남편의 직업지위, 가족생활주기, 주거형태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기 위한 부분과 가사노동에 대한 참여실태를 알기 위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사노동참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육아, 의·식·주생활과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가사항목을 가사노동의 범주내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해서 채택된 영역으로 식생활영역 8가지, 주생활영역 8가지, 의생활영역 9가지, 육아 및 자녀돌보기영역, 기타영역 3가지, 외출을 해야 하는 노동 4가지, 가계관리를 위한 영역 2가지 등 총 35개의 세분화된 영역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이렇게 세분화한 모든 범주의 요소에 대해 양적 조사를 위한 척도를 전혀 앎함, 1년에 한두번, 1년에 세네번, 두달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1주일에 한두번, 1주일에 두세번, 매일 등 8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다. 양적조사의 경우 통계처리를 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사례수이나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결과와의 비교만을 위한 것이므로 단순 Frequency와 Means값만을 추출해 보았다.

② 질적방법을 위한 면접방법

질적방법은 양적방법에서 사용된 조사지의 가사노동항목과 관련된 내용의 Check list를 가지고 조사자정을 방문하여 남편과 아내를 따로 면접하였다. 이때 면접내용은 모두 녹음되었으며, 면접후 이를 다시 정리하여 그에 따른 추가 질문사항을 정리하고 다시 방문을 하여 남편과 아내를 함께 면접하였다. 따라서 각 가정마다 추가 질문사항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면접질문의 순서는 Check list에 나와있는 내용이 빠졌을 때만, 연구자가 중간 중간 질문을 던졌을 뿐, 응답자가 말하기 편한데로 순서와 상관없이 응답토록 하였다.

각 가정은 연구에 필요한 내용이 충분히 응답되었다고 생각될 때 까지 제한없이 4-5회의 계속적인 방문을 하였으며, 후에 결과 분석시 생긴 의문에 대한 추가질문은 전화통화로 보충하였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과 아내 모두를 대상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참여실태를 조사하였을 경우, 남편과 아내에 의해 서로 다른 보고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위를 가리기가 어렵다는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심층면접은 남녀를 각각 따로 면접한 후 서로 다른 보고와 관련해서 둘을 동시에 면접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관찰하였다. 둘째, 부부들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아내와 남편이 할 일에 대한 공통된 기대를 갖고 있으므로, 서로의 특정한 관찰과 상관없이, 또는 그들의 특별한 가정의 특성과 상관없이,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인 규범에 의한 정보가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질문조사에 의한 자료수집의 경우 보다는 심층면접으로 보다 완화될 수 있으므로, 관찰을 토대로 보충하고 이를 방법론상의 제한점으로 남겨둔다. 셋째,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정 특성(가족

형태:확대가족/핵가족, 가정부나 파출부의 고용, 아내나 남편의 질환등)은 아내와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실태를 극단적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부나 파출부를 고용하지 않고 가족원끼리만 가사노동이 수행되며 부부가 건강한 핵가족만을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남편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과 실태를 조사한 후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찾아냈을 때, 과연 이 결과가 방법론의 변화에 의해 나타난 결과인지 시간의 흐름에 의한 변화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같은 조사대상에게 미리 양적조사를 실시한 후 심층면접과 관찰을 함으로써 두 결과를 비교해보았다.

2. 연구대상의 선정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핵가족의 남편과 아내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이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내의 취업은 핵가족내에서 실제 가사노동력의 손실로 여겨져야 하며, 남편에게는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가사노동에 참여할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아내의 취업이나 비취업상태는 가정내 가사노동 성별 분담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같은 연령대에서 아내의 취업상태여부에 따른 두 가정의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를 비교해보았다. 이를 위해 선택된 연령은 30대 핵가족 부부이다. 이때 30대 연령이 채택된 이유는 결혼해서 이제 가사노동분담과 관련된 가정생활방식이 정착되어 안정된 상태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며, 자녀의 가사노동 참여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노동이 아내와 남편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내의 취업이 남편의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친다면 반대로 남편의 취업여부가 달라진 것도 똑같은 측면에서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따라서 아이들이 모두 성장하여 출가한 60대 부부만이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를 조사해보

았다. 이것 역시 자녀의 도움에 대한 기대를 배제하고 부부간의 가사노동 역할 분담만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0대 초반의 취업주부가정, 비취업주부가정과 60대의 남편이 은퇴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중 첫번째 가정은 1994년 9월 25일에서 10월 9일 사이에 걸쳐 조사되었다. 이 가정은 남편 31세의 회사원과 28세의 아내로 이루어진 핵가족이었다. 두번째 가정은 11월7일에서 11일사이에 조사하였고, 62세의 아내와 66세의 은퇴한 남편만이 사는 가정이었다. 세번째 가정은 11월 12일에서 16일 사이에 조사되었으며, 30세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3세의 남자아이로 이루어진 가정이며, 주부가 취업을 한 상태였다. 각각의 가정 모두 방문해서 처음 양적조사를 위한 질문지를 나누어 준 후 남편과 아내가 의논없이 각각 따로 응답하게 하였다. 그 후 면접을 위해 자료를 녹음하였다.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특성

본 연구대상은 비슷한 30대의 비취업주부가정과, 30대의 취업주부가정, 그리고 남편이 은퇴한 60대의 비취업주부가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30세의 비취업주부가정을 '사례1', 31세의 취업주부가정을 '사례2', 62세의 비취업주부가정을 '사례3'이라 명명한다. 사례1집단은 아이가 없는 형성기 가정이다. 사례2는 취업주부가정으로 3세의 아들이 있고, 사례3의 남편은 66세로 현재 은퇴상태이다. 한편 주부의 교육수준 및 남편의 교육수준은 모두 다양하여 사례1의 주부는 대졸, 남편은 대학원재학중이며, 사례2의 주부는 대학원졸, 남편은 대졸, 사례3의 부부는 모두 고졸의 학력수준을 갖고 있었다.

IV. 질적방법과 양적방법의 비교

1. 가사노동 개념상의 문제

가사노동은 가족원을 위한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통하여 가족의 기능을 가능케 하며 가족원 개개인의 복지를 제공해 주는, 개별 가정에서 수행되는 제반 활동이다(Walker & Woods, 1976). 이러한 가사노동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양적방법을 가지고 논문을 시작할 때 이론적 배경이나 선행연구의 고찰에서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주제와 맞는 개념정의를 하고 들어갈 때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적연구에서는 주어진 가사노동의 정의와 분류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미리 설정한 가사노동의 범주만이 가사노동으로 측정된다. 다시말해서 연구자가 생각하고 정의한 가사노동만이 측정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들이 가사노동이라고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고려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질적연구를 통해 가사노동의 개념에 대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정의했던 가사노동과는 달리 남자들은 집에서 여자들이 하는 일을 가사노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가사노동개념을 가진 남자에게 질문지를 통해, 또는 면접시 직접 자신이 하는 가사노동이 있느냐고 물을 경우 우선적으로 하는 응답은 '없다' 라는 답이 된다. 또한 질적연구에서는 남편들의 경우 집에서 하는 일은 아내가 하는 일과 구별되며 이를 가사노동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들은 집안 일 중 힘이 필요한 일 기계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것이 가사노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음도 밝혀졌다. 그렇다면 양적방법을 사용하는 연구자가 가사노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사용했느냐와 상관없이 질문지에 사용된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자와 응답자간의 개념차이는 바로 연구 결과의 오류를 낳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실제보다 질문지 조사가 남편들의 가사노동 참여를 낮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질적연구결과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집은 쉬는 곳, 일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집안에서 자신이 하는 일은 '진정한'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 갖고 있는 일의 개념이 매우 한정적이었다. 그래서 남자들은 가사노동은 사회적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양적방

법에서 가사노동을 ‘일’ 또는 ‘노동’으로 정의할 때와 달리 남자들은 가사노동을 ‘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는 차이도 나타내고 있었다.

이것은 양적방법에서는 연구자가 설정한 개념에 연구대상자들의 개념도 같은 것으로 전제하고 들어간 것과는 달리 질적방법에서는 새롭게 개념정의가 시도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 새로운 개념에 의하면 남편들의 가사노동참여가 더 많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의 의식과 실태가 다를 경우의 증거가 되기도 한다. 예를들어 본 연구의 사례3의 남편의 경우 부부가 같이 있을 때 얘기를 보는 것은 남편이 맡아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는 얘기를 보는 것은 노는 것이라고 여겨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면접자: 얘기 본다는 것은 일이 아닌가요?

남 편2: 음(침묵.....)

남 편2: 애랑 논다 그렇죠. 그렇죠. 애랑논다 애랑논다라는 거죠 일이라기 보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을 가사노동으로 정의할 것이냐 하는 점이 된다. 양적 연구에서 얘기 돌보기는 가사노동의 한 영역임에 틀림 없지만 하는 사람이 일로 생각하지 않을 경우 이것을 일로 볼 것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하나 있다. 두 번째, 또 다른 문제는 양적 연구에서 처럼 미리 가사노동을 정의하고 들어가 얘기 보기가 가사노동의 한 영역으로 들어있을 지라도 본인이 얘기보는 것을 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할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결국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연구자가 서로 다른 가사노동의 개념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 양적연구는 연구자의 의도와는 다른 자료를 수집해 연구자 의도대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이었다. 면접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통해 응답자의 가사노동에 대한 개념중 일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면접자: 그러면 진짜 집안일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남 편2: 취미와 나머지가 아내를 도와준다는 심정에서 내가 해주는거고 그게 집안일이지.

즉 남자는 가사노동을 여자의 일이라고 생각하므로 남자가 주로 담당해서 하는 일은 가사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이 가사노동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남자들의 응답은 집안에서 그들이 여성의 일이라고 스스로 정의해 놓은 부분의 일을 아내의 요구나 아내를 도와주기 위해 하게 되었을 때만으로도 한정하고 대답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여자 또한 집안에서 매일 자주 행해지지 않는 일, 그리고 특히 자신이 맡아 하지 않는 일(다시 말해 남편이 맡아하는 일)은 가사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 응답자들의 이러한 견해 때문에 양적연구에서는 남자들의 가사노동참여가 더 낮게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남자들도 자신들이 맡아하는 일은 아내를 도와주는 일이 아니고 자신들의 일이기 때문에 가사노동항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구자가 양적방법의 질문문항에 가사노동이라는 용어의 직접적인 사용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정확하고 세분화된 가사노동의 개념을 채택하여야 하며 어떤 입장에서 가사노동의 개념을 채택할 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가사노동 분류와 척도상의 문제

선행연구에서 가사노동은 연구자의 관점 혹은 연구목적에 따라 그 분류와 범위를 달리하는 데,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즉 사회경제학 또는 가정경제학적 관점에서 주부의 가사노동 생산성을 평가하기 위한 분류가 그 하나이며, 또 하나는 가정관리학적 관점에서 의·식·주생활을 중심으로 그 특성 및 사용되는 시간, 에너지등이 상이한 여러 가사 작업으로

서의 분류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질문조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육아, 의·식·주생활, 기타 영역과 관련된 다양한 가사항목을 가사노동의 범주내에 포함시켜보았다. 특히 남편과 아내의 역할분담을 살펴보고자 할 때는 다양한 범주뿐만 아니라 그 속의 요소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른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범주를 더욱 세분화하여 그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범주를 아무리 세분화한다고 하여도 양적방법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가사노동개념자체가 가정마다 다르다는 문제외에도 각 가정마다 너무나 다양한 일의 종류와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심층면접시 가사노동의 분류자체도 가정내에 사는 사람들에 의한 분류가 다르고 그들 자신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남 편3: 근데 그것도 가정일입니까? 공과금 내고 그러는게.

가사노동의 개념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가사노동의 분류를 일방적으로 연구자가 해놓고 응답하게 한다는 것은 실제와는 다른 잘못된 측정을 하게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양적조사를 하기에 앞서 가사노동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그에 따른 올바른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사노동의 분류가 완성되면 그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각각의 분류를 어떻게 같은 척도로 측정해 내느냐 하는 척도상의 문제이다. 즉 큰장보기, 세탁소 다니기, 주택수리등이 행해지는 빈도와 밥하기, 식사준비등의 빈도가 같은 척도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이다. 예를들어 주택수리에서 못박기나 형광등갈기와 같은 일은 필요할 때만 행해지는 일이고 밥하기등은 매일 행해지는 일이다. 이때 남자가 밥하기는 한달에 두번, 형광등갈기는 1년에 한번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을 때, 이것은 양적방법의 해석에 의하면 남자는 형광등갈기보다 밥하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실제와 다른 양적조사가 낳는 오

류가 된다. 그러나 면접결과 남자들은 형광등 가는 것은 자신의 일, 밥하기는 여자의 일이라는 답을 하고 있어 양적방법으로 인한 결과가 잘못되었고 질적방법에 의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양적방법은 모든 가정을 한가지 잣대로 비교하려 한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즉 빨래하기가 일주일에 한번 행해지는 가정에서 남편이 빨래를 일주일에 한번한다는 것과 빨래하기가 매일 행해지는 가정에서 남편이 빨래를 매일 한다는 것은 한 가정에서 남편의 빨래에 대한 참여가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양적조사에서는 일주일에 빨래를 한번 하는 남자는 매일 빨래하는 남자보다 가사노동참여도 점수가 낮게 평가 된다는 문제이다. 이것은 바로 결과 해석의 문제를 낳게 된다.

한편 질적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의 문제가 있다. 질적연구의 심층면접을 통한 자료의 수집과정은 곧 분석과정이 된다. 따라서 이때 남성의 일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또는 연구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양적방법과는 달리 질적방법에서는 응답자와의 의견과는 다른 대답을 유도해 낼 수 있다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연구자의 자질이 곧 연구결과의 질과 연결되게 된다.

3. 해석상의 문제

본 연구의 가사노동에 대한 남편의 참여도에 관한 질문지조사결과 30대 비취업주부가정과 30대 취업주부가정은 모두 60대 비취업주부가정의 남편에 비해 낮은 가사노동참여도를 보여 남편이 직장에 가지 않는 경우의 가사노동참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취업주부가정의 남편에 비해 취업주부가정의 남편이 더 높은 점수를 보여 아내의 취업은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를 다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취업주부 가정에 있는 아이의 존재에 의해 나타난 결과일수도 있다. 즉 취업주부가정의 경우 어린 아이가 있어 남편의 아이돌보기

참여가 아이가 없는 비취업주부가정의 남편에 비해 더 높은 참여를 보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이들보기 문항을 아이 밥먹이기, 아이목욕시키기, 아이 옷 갈아입히기, 아이 재우기, 아이에게 얘기해주기, 기타 아이와 같이 놀기등으로 세분화시킨다면 아이가 있는 집의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율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실제상황과는 상관없이 양적방법은 조사도구가 어떻게 작성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의 유도가 가능하고 서로 다른 결과 해석을 하게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질문조사에서 각 항목별로 남편들의 가사노동참여도를 살펴본 결과 남편에 의한 가사노동참여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식사후정리와 거실청소였으며, 그외 화분물주기, 식사준비, 베란다와 방청소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참여점수를 보인 항목은 가계부정리 및 예산짜기, 옷수선, 주택수선, 세탁소다니기, 주택수리, 장보기, 다림질, 별식만들기, 세탁물정리 순이었다. 우선 가계부정리 및 예산짜기가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인 것은 우리나라의 남편들이 아내에게 매달 돈을 갖다 준후 상관을 앓는다는 현실과 일맥상통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수치에 의한 해석이므로 해석시 오류를 범할 소지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정원이 없는 집에는 정원이 없으므로 자신의 표본에 아파트 거주자가 많거나 정원이 없는 응답자가 많을 경우 정원손질은 낮은 평균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또한 밥하기등의 항목도 쌀씻기, 밥을 불에 올려놓고 밥하기등으로 다시 세분화될 수 있으나 가사노동영역은 너무나 다양한 항목을 가지고 있어 이를 일일이 세분화하기는 어려우므로 양적조사에서 조사할 경우는 크게 묶인 영역만이 조사되고, 조사대상자들은 이때 책임감 소재에 의한 응답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결국 양적조사에 의한 방법은 질적방법에 비해 좀더 빠르고 쉽게 자료를 수집하여 이미 추정된 결과나 이론을 검증하고 이론의 지지 또는 기각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통계치에 의해 구해낼 수 있

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의 자료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연구자 단독으로 척도를 구성하고 측정수준과 임계치를 결정하므로 연구자 의도에 맞춘 자료수집과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단점이 보완된 양적방법의 결과는 통계치에 의한 결과의 객관성으로 인해 질적방법에 비해 보다 쉽게 결과에 대한 지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한편 심층연구결과 남자들은 아내를 도와주기 위해 하는 일을 가사노동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이중 가장 대표적인 항목으로 나타난 것은 청소로서 질문지조사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의 질적연구에서 남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무거운 짐 들기, 높은 곳의 정리등이었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들보기를 적극적으로 맡아하지만 이것은 일이라기 보다 오히려 쉬기, 또는 노는 개념으로 까지 이해될 수 있어 남편들에게는 오히려 여가로 여겨짐이 확인되었고 이 같은 현상은 양적연구와는 다른 결과였다. 또한 본 면접에서는 양적방법에서와는 달리 화초가꾸기, 정원손질등은 남자들이 맡아하는 일이라는 하나 그들에게는 여가로 분류되는 일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주택수리의 경우는 남성적인 일이므로 가사노동에서는 제외시킨 남자들의 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들의 참여가 가장 낮은 영역은 부엌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이것은 은퇴를 하여 집안일에 참여할 시간이 많아진 사례의 경우도 가장 늦게까지 참여를 미루는 영역이었으며, 다른 30대 부부에게 있어서는 가장 참여를 꺼리는 영역이었다. 이것은 가사노동의 종류에 따라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를 쉽게 하는 성격과 제한하는 성격이 있음을 알게 한다. 그렇다면 질적 연구가 보다 깊이 있게 행해진다면 양적 연구와는 달리 남편들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끼치는 가사노동의 특징이나 성격을 파악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질적연구에서 심층면접을 통한 자료의 수집과정은 곧 분석과정으로 이미 주어진 답안에서의 응답만이 가능한 양적방법에 비해 새로운 변수의 고려를

가능케 한다. 예를들어 남자들이 참여하는 가사노동의 성격이라든가, 남자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파악이 가능하여 선행연구결과가 부족할 경우 탐색적인 연구에 있어 질적연구가 양적연구에 비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의 철저한 자료분석 능력과 이론적 배경등의 실력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곧 질적 연구결과 해석의 한계가 될 수 있다.

이런식으로 질적연구로는 구체적인 가사노동의 참여율을 알 수는 없지만 가사노동의 참여율과 관련된 새로운 변인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잡아내는 데는 양적인 연구보다 유리한 점이 많았다. 다음은 면접 내용의 일부이다.

사례2의 경우

남 편2: 전 집안일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애들은 저보다 더 많이 하더라고요. 얘기해보면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안가봐서 잘은 모르는데 술 먹자고 그러면 집에 가서 애 봐야 한다고 바로 바로 가고 그러더라. 나보다 더 많이 하는 거 같애. 남자들이 좀 가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사례3의 경우

면접자: 은퇴후에 왜 가정일을 많이 하게 된걸까요?

남 편3: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깐 많이 하게 되는거지.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남편들의 가사노동참여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련변인이다. 사례2에서는 응답자 스스로가 남편들의 가사노동참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사례3의 경우는 남편의 은퇴로 인한 시간가용성의 증가가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변화에 중요한 변화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질적연구에서 이러한 방식의 결과 해석은 주관적인 해석일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즉 양적연구에서 처럼 신뢰도라던

가 수치에 의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연구자의 가사노동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기준만이 결과의 기준이 되어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잘못하면 오히려 연구결과를 왜곡하여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변수의 발견은 양적연구에서 다시 검증하는 방법으로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므로 두 방법이 서로의 문제를 보완해줄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연구 방법은 각각의 장단점을 따지기 보다는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V.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남편들의 가사노동 실태가 과거와 변함이 없는 성역할 분담형태를 고수하고 있으며, 가사노동 참여시간의 증가도 거의 없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과연 옳은가를 밝히기 위해 선행 연구들이 사용한 연구방법(양적방법)의 문제를 살펴보고, 다른 방법(질적방법)을 사용하여 제기되는 결과와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질적방법중 한 방법인 심층면접결과 밝혀진 것은 가사노동이라는 개념은 사람마다 다양하며, 연구자와 연구대상자간에도 다를 수 있고, 같은 집에 사는 남편과 아내간에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한 가사노동의 범주조차도 정확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일이 모여 있어 일의 성격도 각기 다르며, 같은 일도 남자와 여자중 누가 하느냐에 따라 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사노동이 될 수도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개념과 분류가 연구자와 응답자간의 차이로 나타나 양적방법에서는 자료수집시 서로 다른 응답을 하게 한다는 문제를 낳고 있었다. 또한 해석시에도 질문지의 척도가 갖는 문제가 그대로 해석상의 문제를 낳을 수 있음도 확인되었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남편들의 가사노동 참여는 일반적으로 양적방법만으로 그 실태를 잡아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양적연구상의 문제는 질적연구를 통해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즉 밝혀진 영향요인만으로 설명이 안될 때, 선행연구결과가 부족할 경

우 탐색적인 연구시, 또는 새로운 개념 정의가 요구되는 연구에서 질적연구가 행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질적연구의 결과는 양적연구에 의해 검증되어 보다 설득력있는 이론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방법론의 비교 연구에만 초점을 맞추어 질적연구 결과의 해석이 부족하므로 이전 양적방법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결과를 보다 심도있게 밝혀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명희(1984).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주부의 의식 조사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노미혜외(1986). 여성의 취업실태조사-기혼여성을 중심으로-서울;한국여성개발원.
- 3) 송혜림(1988). 남편의 가사노동협력에 대한 주부의 기대 및 남편의 협력실태. 석사학위논문.
- 4) 앤 오클리(1990). 가사노동의 사회학. 문숙재(역). 신평출판사.
- 5) 이기영(1987).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6) 이연숙 외(1991). 맞벌이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
- 7) 이연주(1984). 주부의 취업에 따른 가족내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4).
- 8) 윤복자(1975). 가사노동 및 작업시간. 대한가정학회지. 13. 59-77.
- 9) 임정빈(1981). 도시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2).
- 10) 조복희(1992). 가정학 연구방법론. 교문사.
- 11) 한경미(1989).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 1-13.
- 12) Berk(1980). Women And Household Labor. Sage Yearbooks in Women's Policy Studies Volume 5.
- 13) Sanik, M.M.(1981). Division of Household Work : A Decade Comparison(1967-1977).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10, No.2, pp. 175-180.
- 14) Alcoff, L. and Potter, E. (1993). feminist Epistemologies, Routledge an imprint of Routledge, chapman and Hall, Inc.
- 15) Falco, M. J. (1987). Feminism and Epistemology -Approaches to Research in Women and Politics-. The Haworth Press.
- 16) Harding, S. & Hintikka, M. B.(1983). Discovering Reality, D. Reidel Publishing Company.
- 17) Harding, S.(1986).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and Rondon.
- 18) Harding, S.(1987). Feminism and Methodology, Indiana University Press.
- 19) Walker, K.K. & Woods, M.E.(1976). Time Use: 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 Washington: Center for the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20) Deacon, R.E. & Firebaugh, F.M.(1981). Family Resource Management, Mass: Silyn and Bacon. Inc.
- 21) Wheeler & Arvey(1981).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the Famil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10, No.1, pp.10-20.